

휴비스, 중국 Polyester 2005년 가동

Sichuan과 합작으로 22만톤 투자 ... 외국기업 합작투자 가속화 전망

중국이 1998년부터 Polyester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한해 외국기업이 많지 않았으나 WTO 가입으로 투자가 자유로워지면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휴비스(Huvis)와 Sichuan Polyester가 합작하는 Polyester 22만톤 프로젝트가 2004년 1월6일 Zigong 지역에서 착공돼 2005년 1/4분기에 가동할 예정이며, 이태리의 Radici와 Changzhou Huayuan이 합작한 Huayuan Radici가 투자한 15만톤 프로젝트도 2004년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국은 2002년 Polyester 칩 및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쿼터 승인제도를 철폐하고 자동수입 등록제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수입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수입기업들은 자동수입 등록양식을 작성하면 한달 안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Polyester 칩 및 Polyester 섬유 수입관세도 2002년 초부터 인하됐는데 Polyester 칩은 12.8%, Polyester Filament 섬유는 11.4%, Staple 섬유는 10.6%로 인하됐고, 2003년 1월1일 또 한차례 낮춰져 각각 11.8%, 8.2%, 7.8%를 적용받고 있다.

중국의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개발은 비섬유 PET 연구부문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승용차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쓰이는 플라스틱은 20세기 초반 전체 자동차 무게의 10% 내외에 그쳤으나 현재는 20%에 달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최근까지도 가파른 성장을 계속해 자동차와 주택이 주요 소비부문으로 부상했으며 WTO 가입과 함께 승용차 판매는 2002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이 구입한 승용차가 65% 이상을 차지해 자동차 시장의 주요 구매세력으로 등장했다. 자동차용 플라스틱의 수요는 한해 25만톤에 이르며, 자동차 장식용품에 사용되는 섬유 수요는 매년 8만-10만톤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양쯔강 삼각주, 장강 삼각주, 자본경제지구, 보하이 경제지구를 비롯한 도시지역에 건설 붐이 일고 있어 주택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장식재에 쓰이는 Polyester 섬유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경제개발이 지속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비섬유 Polyester 시장전망이 더욱 밝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Polyester 제조기업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화학섬유협회(China Chemical Fiber Association)는 2001년 6월26일 중국의 주요 Polyester 제조기업을 대표해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에 한국산 Polyester 칩에 대한 반덤핑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어 중국화학섬유협회는 7월23일 한국산 Polyester Staple 섬유에 대한 반덤핑 신청서도 제출했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2001년 8월3일 2가지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화학저널 2004/06/02>